CHUNCHEON URBAN REGENERATION
NEWS MAGAZINE

2023 SUMMER | VOL.11

춘천도시재생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 치읗치읗 11호

발행호 11호 | **발행일** 2023년 08월 10일 | **창간일** 2020년 10월 01일 |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발행인** 신현만
편집위원 이경은, 도윤정, 이채은, 박우진, 성현아 | **디자인/인쇄** (주)엠버(T.033-256-2045)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3 시청별관 3층 (T.033-245-5264) | **협조** 춘천시

uris.chuncheon.go.kr | uris.chuncheon.go.kr/webzine



춘천 도시재생을 찬찬히 기록하다

✳

더 나은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관리의 시대' | 도시재생의 사후관리
로컬크리에이터, 마을 속 보석 같은 공간 | 첫서재, 바라타리아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Chuncheon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CONTENT

도시재생 칼럼 — 04 **더 나은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관리의 시대'** 도시재생의 사후관리

춘천시 — 08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실무과정** 2023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대학원대학

약사명동 — 12 **공유서재 〈첫서재〉, 서투름을 쌓고 설렘을 챙겨가는 공간** 로컬크리에이터, 마을 속 보석 같은 공간 ①

근화소양 — 18 **책방 〈바라타리아〉, 근화동에 〈바라타리아〉를 세우다** 로컬크리에이터, 마을 속 보석 같은 공간 ②

전문가 칼럼 — 25 **시민의 공유 재산, 도시재생사업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교동소양 — 28 **2023 교동 소양동 역사문화 콘텐츠 인문학 프로그램** 시민이 직접 발굴하는 우리 마을의 역사문화자원

약사명동 — 32 **활기찬 약사명동 임시총회~!**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임시총회 소식!

조운소양 — 34 **2023 상상아트스쿨 인터뷰** 청소년들의 꿈과 함께한 무대 뒷이야기

조운소양 — 38 **성수동 일대 선진지 견학** 한국의 브루클린?

조운소양 — 40 **틈새콘서트 & 상상 한 여름** 춘천 지하상가에서 여름나기

우두동 — 44 **노후 담장 벽화조성 봉사**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두동 50호 마을

센터 소식 — 46 **지금 우리 마을은?** 8월부터 10월까지 우리 마을/센터 소식



<첫서재>, 서투름을 쌓고 설렘을 챙겨가는 공간

발행호 통권 11호
발행일 2023년 08월 10일
창간일 2020년 10월 01일

발행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신현만
편집위원 이경은, 도윤정, 이채은, 박우진, 성현아

디자인/인쇄 (주)엠버 (T.033-256-2045)
문의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T.033-245-5264)

도시재생의 사후관리

더 나은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관리의 시대'

글 도윤정



우리가 어떤 도시에 살고 싶은가에 따라 도시는 그에 알맞게 변화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10년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었고, 사업이 종료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긴 호흡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어떤 측면으로 평가해야 할지 고민할 때입니다.

첫 번째, 경제적 효과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치 상승, 상업 활동의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영향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영향 평가는 지역 문제 해결,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연결성 강화, 문화적 가치 증진 등을 고려합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만족도, 사회적 불평등 감소 또한 사회적 영향의 측정 요소입니다.

세 번째 환경 지속가능성

도시재생사업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평가되어야 합니다. 녹지 보전 및 확대, 친환경적인 건축 및 에너지 효율성 등을 고려합니다. 환경 지속가능성 평가는 지역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보호 및 개선을 지향해야 합니다.

네 번째, 도시 디자인 및 공간의 질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디자인과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평가는 도시공간의 역사성을 살린 전통의 보존, 시각적인 아름다움, 접근성, 기능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공간의 개선과 도시환경의 쾌적함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관리 및 유지 보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은 사후관리, 유지 보수, 지속가능한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 사회적 참여 및 협력,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의 구현 단계이지만 다섯 번째는 도시재생의 사후관리 단계로, 새롭게 재생된 도시 공간을 지속가능하고 기능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사후관리가 부족하면, 그동안 쌓아온 도시재생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사후관리 목적은 다음 세 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 시설물 유지보수

사후관리는 도시재생 지역의 건물, 도로, 공원 등과 같은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신경 써야 합니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사용 가능성을 보장하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회 및 경제적인 측면의 지속성

사후관리는 계속해서 주변 사회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며, 전통의 보전과 상업 및 경제적인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선배 기업에 배우고 협력하여 상업적인 운영과 지역사회의 니즈에 맞춘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민 커뮤니케이션 및 참여

도시재생사업 기간 내내 일구어냈던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사업이 끝난 후 주민들은 갑자기 끝나버린 도시재생 사업에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주민의 수용성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사후관리 또한 도시재생의 비전 및 계획 수립 단계와 마찬가지로 마을의 도시재생 목표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 수립에 애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구축이 필수 과제입니다. 도시재생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후관리 단계는 “지속가능”이라는 이름의 도시재생 마지막 퍼즐입니다.



2023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대학원대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실무과정

글 이경은 **자료 출처**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의 자료

교육 목표 도시재생 업무 관계자 실무역량강화

교육 대상 강원도 도시재생 기초·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 업무 실무자, 강원도 시군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 50명 내외

교육 일시 (1차) 2023년 6월 14일(수) 10:00~17:00(6시간)
(2차) 2023년 6월 21일(수) 10:00~17:00(6시간)

교육 장소 원주시 상지대학교 대학원관 2층 소셜캠퍼스온 강원이벤트홀



1회차	2회차
❶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업유형 및 고도화 강사: 신배정 책임연구원	**❶ 지속가능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방안** 강사: 신배정 책임연구원
· 전국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유형 빅데이터 분석 · 로컬기반 도시재생 커뮤니티 비즈니스 전략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프로세스 ·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의 이해, 유형
❷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이해 강사: 오현경 팀장	**❷ 법인회계의 이해 및 활용** 강사: 이미순 본부장
· 조합원의 의미 역할 권리 의무, 출자금의 이해 · 총회/이사회/감사의 이해, 소집 방법, 개최 조건 · 의사결정기구별 의결사항 및 조합원의 의결권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9단계 · 단계별 발기인의 역할 및 준비서류	· 법인회계 기본 이해 및 활용 · 법인 세부 기본 이해 및 활용
	❸ 협동조합 운영 이해 강사: 김겨울 과장
	· 협동조합의 총회, 총회 준비, 법인 운영 관리 실무 · 보드게임으로 익히는 협동조합 총회 운영
❸ 협동조합 기본법 이해: 정관을 바탕으로 강사: 김겨울 과장	**❹ 사회적협동조합 의무사항 '경영공시'의 이해** 강사: 오현경 팀장
· 협동조합 규범 체계 이해 · 협동조합 기본법 주요조항 작성 실습	· 경영공시의 의미와 시기, 대상/절차, 준비서류 · 공익사업의 기준과 증빙, 경영공시 입력 및 유의사항

2023년 강원도 도시재생대학원대학에 참석하고자 6월 원주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교육은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을 주제로 사업 유형 및 고도화 방안, 협동조합 기본법, 법인 회계, 경영 공시 등 7가지의 세분화된 강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란?

-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선인 사회적경제 조직과는 달리 지역의 문제를 도시재생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을 가치로 삼고 있음
- 도시재생으로 조성된 공간 등을 운영·관리하는 위수탁의 주체가 될 수 있음(공공성과 대표성 담보)
-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속성을 확보 (마을의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한 주민 자조조직으로 주민 참여에 기반한 마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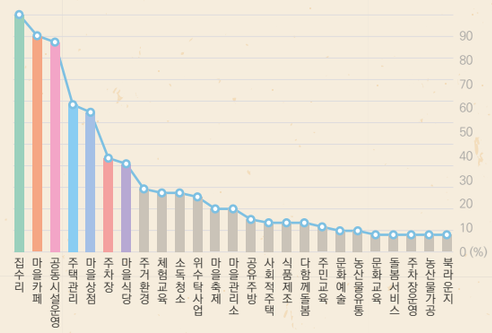
1)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유형 분석

신배정 책임 연구원은 2023년 2월 기준 설립이 완료된 전국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사협)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아이템과 출현 빈도 등 마사협의 특성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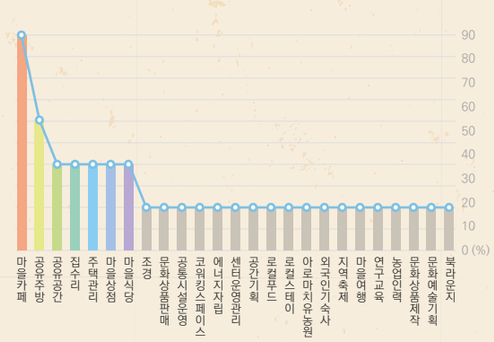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설립이 완료된 도내 마사협은 총 14개소(전국 145개소, 철원 양지마을 해산)이며, 그중 춘천은 근화소양 마사협, 약사명동 마사협 2개소가 각 21년도와 23년 인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사협의 핵심 사업 조사 결과, 전국의 마사협 중 90% 이상이 집수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70% 이상이 마을카페, 공동 시설 운영 사업, 50% 이상이 주택 관리, 마을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90% 이상이 마을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50% 이상이 공유주방, 40%가 집수리, 주택관리, 마을상점, 마을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요사업 현황



강원도 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요사업 현황



조사 지역	인식 차이		연구자
	주민	전문가 · 행정	
창원시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지구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	김공양 (2016)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추진 조직, 사업 내용, 공동체 의식 (도시재생홍보, 지역행사)	공동체 활성화(지역애착)	강맹훈 외 (2017)
창원시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지구		사회중심형 재생사업(주민참여)	이정동 (2017)
아산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지역	경제적 재생	물리적 재생	하민수 (2018)
전주시 한옥마을	먹거리, 볼거리 등 관광객 유인	역사성 등 가치적 요인	주상현 (2019)
인천광역시 도시재생뉴딜 선정 지역	지역 일자리 창출, 둥지내몰림 대응, 재원조달 다양화, 경제활동 운영지원	주민역량강화, 갈등관리, 참여기관 협업, 주민의견 반영	최재국 (2020)

지역 주민과 전문가·행정 간 도시재생사업 인식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 두 주체 간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시재생 유형은 접근 방법에 따라 물리적·환경적 재생,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 문화적 재생, 복합적 재생 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역 주민은 도시재생을 경제적 재생으로 인식하여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마을상가 운영 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전문가·행정은 도시재생을 사회적 재생으로 인식하여 공동체, 주거복지, 상인 복지 등을 중점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배정 책임 연구원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국의 마사협이 주민 주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개념인 공동체성이 낮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면서, '마사협은 주민,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되어야 하며, 이들이 주체로 활동하고, 이들의 커뮤니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2)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고도화 방안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성과로 만들어진 지역자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마사협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사협은 도시재생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정책에 따라 사업 구역 내 자산·자원관리자로서 안정적 성장과 경제적·공공적 성과를 창출하여야 하고, 지역의 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앵커시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신배정 책임 연구원은 마사협의 사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주민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협의체는 비영리단체이지만 마사협은 주민조직이 법인화된 조직입니다. 출자금 한도 책임, 경영공시, 조합원으로부터 수여 받은 권한과 업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은 마을의 활동을 더 이상 주민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서는 사무국과 사무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무국의 역할은 사업 계획서 작성, 공문 작성 및 발송, 계약 서류 준비 및 계약 등의 행정 업무부터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 홍보 마케팅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마사협 내에 있는지 우선 파악을 하고, 없다면 성장시킬 수 있는 여건이나 의지를 가진 인물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만약 마사협 내부에 없다면 고용의 형태로 가능한지, 고용한 사람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무직원 외에도 지역 내 역량 있는 조합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하며, 조합원 간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책임감과 소속감을 높이고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을 법인 조합원으로 들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6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친 교육 시간 동안 협동조합의 기본법, 정관, 법인 회계, 경영 공시 등 마사협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을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는 창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s://gwse.or.kr

›› **COOP 협동조합** https://www.coop.go.kr/home/index.do

키워드와 퀴즈로 풀어보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에 대한 헷갈리는 내용을 퀴즈를 통해 익혀봅시다! 퀴즈의 답은 하단에 있습니다.

Q1. 협동조합의 정의
( )으로 소유하고, ( )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람들이 ( )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Q2. 조합원이란 무엇일까요?
조합원이란 협동조합의 ( )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 )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Q3. 어떤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1) 자연인 (2) 법인 (3)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
(4)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 (5) 공무원

Q4. 언제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되나요?
(1)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시기
(2) 출자금을 납부한 시기

Q5. 협동조합의 임원의 임기가 4년인 경우, 이사장의 최대 임기는 몇 년일까요?
(1) 8년 (2) 12년

Q6. (OX 퀴즈) 협동조합의 이사회와 총회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Q7. (OX 퀴즈) 정관 상 총회 의결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위임할 수 있다?

Q8. 이사회로 의결 가능한 안건은?
(1) 2023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2) 감사보고서 승인
(3) 임원 선출(이사장, 이사, 감사)
(4) 정관 변경

Q9. (OX 퀴즈) 사회적협동조합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전부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Q10. (OX 퀴즈) 사회적협동조합도 잉여금이 있으면, 구성원들기리 분배할 수 있다?

답

1. 공동, 민주적, 자발적 **2.** 설립 목적, 의무 **3.** 모두 가능함 **4.** ② **5.** ② **6.** X **7.** X **8.** 없음. 모두 총회에서 의결해야 함 **9.** X.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정관' 변경에 대해서만 소관 중앙부처에 '정관 변경 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외 임원 변경, 주소지 변경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 없이 등기 및 이후 절차를 행하면 됩니다. **10.** 공익적인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잉여가 발생했을 시 내부 구성원들끼리 나눠 갖는 배당은 불가합니다.
* 잉여금의 처리: 손실 보전 〉 법정 적립 30% 〉 임의 적립 10%



local creator 1

로컬크리에이터, 마을 속 보석 같은 공간 ①

공유서재 〈첫서재〉, 서투름을 쌓고 설렘을 챙겨가는 공간

글 이경은 **인터뷰** 서재 주인 남형석 **사진** 도윤정, 〈첫서재〉 인스타그램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145번길 36 첫서재
운　　영 네이버 예약
독서모임 저녁 7시 이후 ※독서모임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사동 1-73번지. 집주인이 세상을 떠난 후 온기를 잃어가던 이곳에 어느 날 작가 부부 한 쌍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이 부부는 먼저 버릴 것, 남길 것, 채울 것을 구분했습니다. 우선 '내려앉은 지붕, 깨진 창문, 낡은 옷가지, 곰팡냄새가 진동하는 책더미들'을 버렸고, '집을 지탱하는 대들보, 집과 동갑이라는 60살 된 라일락 나무, 녹슬긴 했지만 세월을 버텨낸 크고 작은 장독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들보와 라일락나무와 첫서재를 연결해줄 나뭇결, 아늑한 노란 불빛, 고르고 고른 책들'로 공간을 채워 이곳을 '서투름을 쌓고 설렘을 챙겨가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죠. 마을 곳곳에 자리한 이러한 공간들이 마을을 다시 살리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면서도 다분히 프라이빗한 〈첫서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서울에서 오신 작가님, 당신은 누구신가요?

첫서재 글책지기인 저는 서울에서 방송기자 생활을 하다 휴직을 하고 춘천에 내려왔습니다. 스무 달 휴직기간 동안 머물기 위해 왔다가 춘천이 좋아서 복직 이후에도 서울까지 편도 2시간 넘는 출퇴근 시간을 감내하며 춘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림책지기인 아내는 아이와 어른 모두를 상대로 그림책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그림책 테라피스트'입니다. 그림책 작가로 활동을 갓 시작하기도 했고요.

〈첫서재〉,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처음 문을 열 때는 저희가 읽고 쓰기 위해 머물면서, 동시에 손님들이 오시면 공간과 커피와 책을 내어드리는 공유서재였습니다. '돈이 아닌 것들로 5년 뒤에 숙박비를 받는 조건'으로 일주일씩 다락방을 내어드리기도 했지요. 지금은 한 명 혹은 한 팀에게 독채로 하루씩 대여해드리는 무인 공유서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구도심, 약사명동에 공유서재 〈첫서재〉를 열었습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춘천 여행 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동네였습니다. 앞으로는 시냇물이 흐르고 뒤로는 옛 성당의 첨탑이 보이는 도심 속 옛 골목이라니요. 서재 차릴 곳을 알아보기 위해 이 골목을 걷다가 폐가 상태로 있던 파란 지붕의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지 오래된 듯 보였지만 라일락 나무가 살아 있고 외벽의 타일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운명적으로 이곳에 책의 소우주를 지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전 모습. 파란지붕, 라일락 나무, 반짝이는 타일이 작가의 눈에 들었더랬다.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요. 건물을 매입하고 〈첫서재〉의 공간을 구상하면서 작가님께서 머릿속으로 그리신 그림,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부부 각자의 살아옴을 빼닮은 공간으로 꾸미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공간만 둘러봐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취향에 꽂혔구나, 이런 냄새와 재질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책을 읽으며 자라왔구나'생각이 드는 공간 말이죠. 그래서 각자의 방을 정하고,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걸 손님들이 애정 어리게 봐주고 궁금해하거나 공감해주실 때 큰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세상 어디에 우리와 닮은 사람이 있었다는 느슨한 연대감이 들어서요.



글책지기가 좋아하는
글책방과
그림책지기 아내



손님이 남기고간 편지가 벽면에 가득했다

공유서재이기 전에 이곳은 작가님의 서재이죠? 작가님께서는 주로 어디에 머무세요?

글책지기인 저는 문학과 에세이가 놓인 글책방을, 그림책지기인 아내는 그림책이 놓인 그림책방을 자연스럽게 선호합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는 글책방 흔들의자에 몸을 내려놓거나 다락방에 누워 나무의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편입니다. 아내는 그림책방 창가자리에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날씨가 좋으면 라일락나무 벤치에 앉아 책을 읽더군요.

공간을 나누지 않고 독채 그대로 서재를 대여하시는 것도 놀라워요. 독채 대여로 운영하시고자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서재에서 손님들이 완벽한 평온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주한다면 그 분위기를 조율할 수 있을 텐데 저희 부부 둘 다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그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무인으로 운영하되, 한 분 혹은 한 팀이라도 완벽하게 독립된 상태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시라고 독채로 대여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매일 반나절 혹은 한나절 이용하실 수도 있고, 며칠 이상 머문다면 밤에 퇴실하지 않고 다락방을 이용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예약을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공간 대여 외에도 저녁 시간에는 살롱도 기획하고 계신다고요?

보통 저녁 7시 이전에 손님들이 나가시기 때문에 그 이후 시간을 이용해 다양한 살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닥투닥 그림책살롱〉이 저희 시그니처 살롱인데요. 어른들끼리 소수로 모여 그림책을 읽고 준비된 활동도 같이 해보며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달래는 시간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지를 올리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8월부터 늦가을까지는 책과 맥주를 함께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책맥살롱'도 열 예정이고, 유명 작가님들을 모셔 와 북토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취향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들



책장 뒤 비밀의 공간처럼 숨어있던 〈첫다락〉

독자님들께 이 계절에 읽기 좋은 책 한 권 추천해 주세요!

늦여름과 가을은 독서하기 가장 알맞은 계절인데요. 우선 첫서재에 관한 인터뷰인 만큼 저희가 춘천에 오기로 결심해서 서재를 차리고 손님들을 초대한 모든 과정을 담은 〈돈이 아닌 것들을 버는 가게〉를 부끄럽지만 권하고 싶습니다. 그림책 중에는 수확의 계절인 만큼 〈프레드릭〉을 추천드려요. 저희 공간의 마스코트이기도 한 '햇볕과 색깔과 이야기를 모으는' 귀여운 생쥐 한 마리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상을 꺼내어줄 거예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대들보



로컬크리에이터, 마을 속 보석 같은 공간 ②

책방 〈바라타리아〉, 근화동에 〈바라타리아〉를 세우다

글 이경은 **인터뷰** 책방주인 강은영 **사진** 도윤정, 씨엘건축사사무소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당간지주길74번길 5
운영시간 11시~19시
휴 무 일 수요일
독서모임 화요일 저녁, 목요일 오전과 저녁 ※ 독서모임은 인스타그램 DM 또는 카운터에 문의해주세요.

'산초야, 내가 잘 풀리면 언젠가 너에게 성주 자리 하나 꼭 내주마'
돈키호테는 종자 산초에게 늘 자신과 함께할 것을 당부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돈키호테와 산초를 골탕 먹이려고 산초에게 가짜 영주 자리를 내주었다. 마치 트루먼쇼처럼 마을 주민들이 둘을 속이기 위해 온 마을을 세트장으로 꾸민 셈이다. 이를 알 리 없는 산초는 마을을 성심껏 돌보았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당시의 정치인들과는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누구에게나 통하는 상식선에서 일을 해결하고 필요한 때에는 법률로 만들어 모든 이가 지키게 했다. 산초가 영주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단 열흘이었다. 골탕 먹이기 위해 시작한 마을 주민들은 그를 떠나보내야 했을 때 진심으로 슬퍼했다. 그때 산초가 다스렸던 마을 이름이 〈바라타리아〉이다.





언젠가 가장 낭만적인 동네책방을 운영하고 싶다고 막연하게 꿈꾸던 책방주인 부부는 10년 가까이 책방 이름을 고민했다. 춘천에 자리잡기로 결정한 뒤로 낭만서점, 춘천은 가을도 봄이지, 청춘책방 등 여러 후보들을 떠올렸지만 마음에 드는 이름들은 이미 누군가 채간 후였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날, 후보에는 없던 이름이 하나 떠올랐다. 책방주인 부부가 평소 좋아하던 소설 〈돈키호테〉 속의 작은 유토피아 〈바라타리아〉.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바라타리아〉를 꾹꾹 눌러 담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너무 생소한 이름은 아닌지 걱정이 뒤따랐다. 그런데 막상 〈바라타리아〉라고 이름을 정하니 책방을 찾아온 손님들이 책방주인에게 꼭 물어본다는 것이다.

'〈바라타리아〉는 무슨 뜻이에요?'

이 생소한 이름 덕에 책방주인은 오늘도 책방을 찾아온 손님과 자연스레 대화를 시작한다.

춘천의 구도심, 근화동을 선택한 이유

춘천에서 책방을 열자고 제안한 것은 남편이었다. 춘천은 남편의 두번째 고향(고등학교, 대학교를 춘천에서 나왔다)이기도 했고, 아내도 춘천에 머무를수록 춘천이 좋아졌다. 춘천 안에서도 여러 후보지가 있었다. 처음에는 온의동과 번개시장 쪽을 고려했었는데 우연히 산책하다 들른 이 골목 풍경이 너무 좋아서 이곳으로 결정했다. 주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책방주인은 이곳이 그저 좋았다. 때때로 풍경은 선입견 없는 낯선 이에게 제 모습을 더 솔직하게 드러낸다.

또 하나의 이유는 봉의산이었다. 춘천의 주산인 봉의산의 끝자락에 머물고 싶었다.

"봉의산은 봉황이 내려앉은 산이라고 하잖아요. 봉황의 먹이가 대나무라서 봉황의 기운을 받으려면 근처에 대나무숲이 있어야 하는데 춘천은 대나무가 자라기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사람들은 비록 대나무숲이 자랄 수는 없지만 대나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계속 오르내리면 그 기운이 날 것이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춘천에 '죽림동'이라는 동네 지명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재미있고 정감이 가요."





책방주인은 봉의산을 가까이하고 싶어 한 벽면에 크게 창을 내어 봉의산의 풍경을 담았고, 봉황의 먹이인 대나무를 강릉에서부터 공수해 와 책방 곳곳에 두었다.



미래에 보내는 미리 계산한 책, 미미책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갈 무렵, 책방주인 부부는 북큐레이션과는 별개로 책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러다가 임경선 작가의 〈어디까지나 개인적인〉이라는 책 속에 나왔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모든 결과엔 이유가 있다〉라는 소제목이었어요. 하루키는 고베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그가 살던 동네에는 서점이 하나 있었나 봐요. 하루키는 책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곳에서 책을 가지고 왔어요. 하루키의 부모님이 책방주인에게 미리 부탁을 해두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책을 보고 싶어 하면 그냥 내어달라고, 값은 자신이 와서 주기적으로 치를 것이라고요. 임경선 작가는 하루키가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때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죠.

통계상 책 구매량이 제일 많은 연령대가 1~9세까지라고 해요. 부모님들이 9세까지는 책을 계속 지급해 주는 것이죠. 읽어주든, 손에 쥐여주든, 책장에 꽂아두든. 그런데 10세부터는 부모님의 그런 지원도 끊기는 데에다가 아이들이 보는 책이 주로 교과서, 학습지, 추천 도서 등으로 제한되어요. '지금 사회의 시스템상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골라오는 것이 가능한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책방주인 부부는 어린 시절 하루키처럼 원하는 책을 언제든 고를 수 있게 〈미래에 보내는 미리 계산한 책, 미미책〉을 고안했다. 어른들이 미래에 보낼 책을 골라 결제를 하면 〈미미책〉 선반에 책이 전시된다. 아이들은 그곳에 전시된 책 중에서 원하는 책을 골라가면 된다. 때때로 어른들은 자신이 남긴 책에 포스트잇으로 편지를 남기기도 한다. 아이들은 책을 통해 위로받기도 하고 어른이 남긴 편지에 위로받기도 한다.

책은 특이한 성질이 있다. 다른 물건과 다르게 책은 함부로 선택되지 않는다. 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굳이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서 미미책을 통해 의미없이 나가는 책은 없다. 이제까지 100여 권의 미미책이 나갔고, 아직 100여 권이 더 남아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미책장은 채워질 것이다.



늦여름, 초가을. 이 계절 읽기 좋은 책

책방주인은 책 추천을 요청받을 때마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되도록 국내 작가를 추천해야지, 치우침이 없게 해야지, 그리고 진짜 좋은 책을 추천해야지' 하고 골똘히 고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옅은 회색 배경에 초록색 굵은 세로 선이 여러 겹 그려진 책을 내밀었다. 봉의산과 대나무 이야기를 들은 탓일까. 책을 보자마자 여름의 대나무숲이 떠올랐다.

책방주인이 추천한 책은 권여선 작가의 〈각각의 계절〉이다. 〈각각의 계절〉이라는 책 이름은 책 속의 단편 '하늘 높이 아름답게'의 마지막 문장인 '각각의 계절을 나려면 각각의 힘이 들지요.' 에서 따온 것인데, 이 문장이 책방주인의 마음에도 깊게 와닿았다고 했다.

"각각의 계절이란 실제로 자연의 사계절일 수도 있고, 인생에 있어서 각각의 시기들일 수도 있어요. 이 고비만 넘기면 앞으로가 다 풀릴 것 같지만 중년의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남은 인생을 모두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요. 인생의 굴곡들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어지는 것이어서 각각의 굴곡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 크기에 맞는 힘으로 대처해 나가야 해요. 완급조절이 필요한 거죠."



〈각각의 계절〉은 단편 소설로 묶인 소설집이어서 긴 호흡으로 읽기 어려운 분들도 부담 없이 한편씩 꺼내 볼 수 있는 구성이다. 책방주인은 '생각날 때마다 한편씩 꺼내 읽으면서 이 여름을 보낼 힘을 얻어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강릉에서 공수해 온
대나무





벽면을 가득 메운 큰 책장

설계사의 만류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샹들리에 벽부등

책방주인 부부의 취향과 설계사의 섬세함이 잔뜩 묻은 공간

Book의 B를 연상시키는 건물 외부,
경계가 있는 듯 없는 듯 이어지는 내부 공간,
제일 높은 칸에 다다르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할 만큼 벽면을 가득 메운 큰 책장,
책장 뒤로 번지는 은은하고 모던한 조명,
설계사의 만류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샹들리에 벽부등,
봉의산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창,
강릉에서 공수해 온 대나무,
미술 작품 부럽지 않은 색색의 아름다운 책.

〈바라타리아〉는 책방주인 부부의 취향과 설계사의 섬세함이 잔뜩 묻어 예쁘지 않은 공간이 없다.

시민의 공유 재산, 도시재생사업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글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허준구 소장

시민의 공유 재산 도시재생사업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줄곧 국토에 대한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는 경제성장 위주의 산업 정책과 맞물리며 이룬 성과도 많지만, 그 그늘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들어서며 기계적 대량생산 산업에서 전자공학·하이테크·IT산업·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구조의 변화로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신성장 산업 동력이 없는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주거환경 또한 노후화 등으로 도시가 낙후하였다. 낙후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창출을 도출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그 지역 경제·사회·물적·환경을 활성화하여 그 가치를 높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 사업이 도시재생이다.

도시재생사업은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며 도시 확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유럽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는 2010년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법규를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560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종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첫째 생활문화 도심, 둘째 문화경제 도심, 셋째 역사문화 도심, 넷째 청년문화 도심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춘천 도시재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비전으로는 첫째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둘째 문화와 낭만이 흐르게 하며, 셋째 문화 도심 춘천을 제시하고 있다. 이 비전을 현실로 재현하려는 핵심 목표로 첫째 생활문화 도심, 둘째 문화경제 도심, 셋째 역사문화 도심, 넷째 청년문화 도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핵심 목표를 사람, 역사, 문화, 장소성 등을 핵심 가치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심 구축을 이루는데 두고 있다.

재생사업을 이끌고 실행해 온 춘천 사람이 지금까지 이루고 만든 무늬가 역사이자 문화이며 춘천이 공간이자 그 재생 현장인 셈이다. 춘천에는 예비사업을 포함하여 여섯 곳에서 재생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다. 우두동 예비사업인 '돌봄으로 활력 찾는 50호 마을', 조양운교 예비사업인 '골목길의 새로운 변화, 행복가득 조양운교', 근화·소양 뉴딜사업인 '옛길, 맛길, 물길 어우러진 소양 문화마을 만들기', 약사·명동 뉴딜사업인 '공유 공생 공감 약사리 문화마을 만들기', 교동·소양 뉴딜사업인 '봉의산 비탈마을의 행복한 반란', 조운·소양 뉴딜사업인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문화가 숨쉬는 조운동네'가 있다.

조양운교를 제외한 다섯 곳은 거점시설을 건축하였거나 건축 예정이다. 그리고 사업종료에 맞추어 거점시설을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거나 설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사업종료에 맞춰 그간의 사업 진행 과정과 결과를 담은 백서를 출간하였거나 출간 예정이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 '공공 주도, 보존 위주'에서 '민간 주도, 개발 위주'로 바뀌고 있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형 보존에 치우쳐 낙후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해인 2022년 7월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전면 철거 재개발을 허용하고 성과 중심으로 사업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라고 하였다. 이 보도에 따른다면 도시재생사업의 방향 전환이 사실상 도시재생에서 다시 도시개발로 선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이 '공공 주도, 보존 위주'에서 '민간 주도, 개발 위주'로 바뀌고 있다.

춘천 디지털 기록관 (디지털플랫폼)에 탑재하여 시민의 공유 재산으로 후세에 남길 필요가 있다

춘천의 경우 도시재생사업 구역에서 벗어난 약사동 망대가 도시 개발로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 망대는 70년 이상의 춘천 역사와 문화에 상징성을 지닌 중요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근현대 문화유산인 등록문화재로 전혀 손색이 없는 건축물로 보이며 지척에 죽림동성당과 그 역사를 함께 해왔다는 점에서 시민의 뜻과 중지를 모아야 할 때다.

춘천 도시재생사업 진행 과정을 기록하여 춘천 디지털 기록관(디지털플랫폼)에 탑재하여 시민의 공유 재산으로 후세에 남길 필요가 있다.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에서 재생사업 구역 내 주민의 증언과 마을 관련 기록을 마을지(동지洞誌)에 담아 그 큰 윤곽은 그려놓았으나, 여전히 재생사업 구역 내 사업종료 시 재생지역 내 주민과 주민이나 주민과 마을 재생사업센터 간의 기록이나 영상 또는 커뮤니티까지를 포함한 자료는 부재해 보인다.

재생사업 종료 시까지 1) 수집 및 생산 : 사진, 구술채록(마을의 공동기억), 영상, 생활사 자료(메타데이터 작성), 디지털 기록 2) 기록물 관리 : 원본 기록물 수장, 기록물 디지타이징(생산연도 소장자 장소 등 기재) 3) 활용 : 사진집, 구술채록집 발간. 다큐 멘터리나 영화 제작, 기록물 검색과 다운로드 가능한 플랫폼 탑재(춘천디지털기록관), 오프라인 전시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마을 관련 기록물이 흩어지지 않고 보전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의 마을에 대한 집단 기억을 공유함은 물론 춘천 디지털 기록관에 탑재하여 시민의 자산으로 공유하며 동시에 춘천의 귀중한 유무형의 자산을 후손에게 선물로 남기는 작업이리라 확신한다.

1) 수집 및 생산
사진, 구술채록(마을의 공동기억)
영상, 생활사 자료(메타데이터 작성)
디지털 기록

2) 기록물 관리
원본 기록물 수장
기록물 디지타이징(생산연도 소장자 장소 등 기재)

3) 활용
사진집, 구술채록집 발간
다큐멘터리나 영화 제작
기록물 검색과 다운로드 가능한 플랫폼 탑재(춘천디지털기록관)
오프라인 전시 등의 프로세스

시민이 직접 발굴하는 우리 마을의 역사문화자원

2023 교동 소양동 역사문화 콘텐츠 인문학 프로그램

글 이채은 **협조** 박동진 **자료출처** 강원도민일보



사 업 명 2023년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사업일시 2023. 7. 8. ~ 2023. 7. 30.
사업장소 커뮤니티 돌봄센터 A동 2층 북카페(춘천시 옥천길40번길 16)
모집대상 춘천시민(25명)
사업목적 교동·소양동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활성화
사업내용 춘천시 교동 소양동 중심의 다양한 인문학 수업 진행

춘천 시민(주민)이 직접 마을의 역사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교동 소양동 도시재생사업(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2023년 교동 소양동 역사 문화 콘텐츠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춘천시가 주최하고 교동 소양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춘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3년 7월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서 매주 주말마다 춘천시 옥천길 40번길 16번지에 위치한 커뮤니티 돌봄센터 A동 2층 북카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은 교동 소양동의 역사, 문화, 예술을 주제로 한 인문학 강의와 교동 소양동 지역을 직접 둘러보는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교동 소양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문학 수업을 진행하여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사업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7월 8일 토요일, 지병준 한림성심대학교 교수의 챗GPT와 디지털 4차 산업 혁명 기술 알아보기 강의로 첫 인문학 프로그램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기술의 중심이 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AR, VR과 Chat GPT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여자들은 VR기기를 직접 착용해 보면서 가상의 공간을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7월 9일 일요일 두 번째 시간에는 이학주 문학박사의 춘천학 특강 I (춘천에 이런 곳이 있었네)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문학박사님께서는 교동 소양동의 역사 문화 자원들을 소개해주시고 '사랑의 신 전계심, 그리고 봉의산 이야기'라는 설화를 들려주셨습니다. 해당 설화는 우리에게 사람의 삶은 보이지 않는 무엇이 결정짓는다는 교훈을 주는 봉의산에 머물던 여신 전계심의 이야기로 춘천 교동·소양동 지역 예술가인 이무상 시인은 〈계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문학박사님과 참여자들은 교동 소양동 지역을 둘러보며 강의 속에서 들었던 곳을 실제로 찾아가 인문학 강연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의가 7월 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해외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사례에 대한 강의 및 자유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춘천 작가인 최삼경 소설가의 북 강연회와 그 외 춘천의 자연과 기후 변화, 춘천 민주주의의 역사, 내 생의 최고의 인생 영화 등의 주제로 강연 및 현장실습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일요일 박은주 팝오케스트라 단장의 '한여름 밤의 꿈'뮤직 콘서트로 프로그램은 마무리되었습니다.

〈2023 교동 소양동 역사 문화콘텐츠 인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한 박동진 코디네이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춘천시민 및 교동 소양동 주민이 직접 마을의 역사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과정을 겪으며 교동 소양동의 역사적 특성을 발전시켜 의미가 있었다"고 사업 진행 후기를 전했습니다.

2023 교동 소양동 역사문화 콘텐츠 인문학 강의 커리큘럼

회차	일정	내용	장소	비고
1	7월 08일(토) 오전10시	**챗GPT와 디지털4차산업 혁명 기술 알아보기** · 강사: 지병준 교수 · 강의: 2시간(돌봄센터) · 현장실습: 1시간(교동,소양동일대)	커뮤니티 돌봄센터 A동	강의 및 실습
2	7월 09일(일) 오후2시	**춘천학 특강 1: 춘천에 이런 곳이 있었네** · 강사:이학주 박사 · 강의: 1시간(돌봄센터) · 교동소양동일대 현장학습 2시간(도보이동)	커뮤니티 돌봄센터 A동 교동·소양동 사업구역일대	강의 및 답사
3	7월 15일(토) 오전10시	**춘천 작가와 함께하는 북 강연회** · 강사: 최삼경 소설가 · 강의: 2시간(돌봄센터) · 작품감상 동영상학습 1시간(돌봄센터)	커뮤니티 돌봄센터 A동	강의
4	7월 16일(일) 오후2시	**춘천학 특강 3 (춘천의 민주주의 역사)** · 강사: 천남수 소장 · 강의: 2시간(돌봄센터) · 교동소양동일대 현장학습 1시간(도보이동)	커뮤니티 돌봄센터 A동 교동·소양동 사업구역일대	강의
5	7월 22일(토) 오전10시	**춘천학 특강 2 (춘천의 자연과 기후변화)** · 강사: 최열 환경재단이사장 · 강의: 2시간(돌봄센터) · 교동소양동일대 현장학습 1시간	커뮤니티 돌봄센터 A동 교동·소양동 사업구역일대	강의
6	7월 23일(일) 오후2시	**내생의 최고의 인생 영화** · 강사: 박찬수 감독 · 강의: 2시간(돌봄센터) · 영화감상 1시간(2편이상)	커뮤니티 돌봄센터 A동	강의 및 감상
7	7월 29일(토) 오전10시	**해외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사례** · 강사: 홍순화 회장 · 강의: 2시간(돌봄센터) · 자유토론 1시간(카페)	커뮤니티 돌봄센터 A동	강의 및 토론
8	7월 30일(일) 오후2시	**뮤직 콘서트 (한여름밤의 꿈)** · 강사: 박은주 연주 · 강의: 3시간(테이블)	커뮤니티 돌봄센터 A동	강의 및 공연



약사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임시총회 소식!

활기찬 약사명동 임시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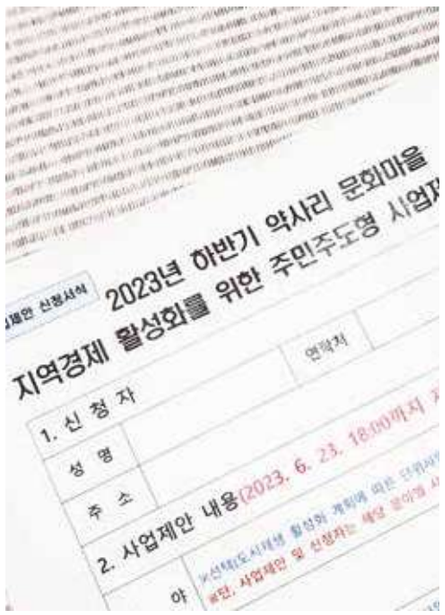
글/사진 박우진,이정아

안녕하세요. 6월 28일 오후 4시 집수리도서관 1층에서 약사리 문화마을 주민협의체의 임시총회가 있었습니다. 약사명동 주민협의체는 거의 매주 회의를 진행해왔지만, 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1월 이후 오랜만에 열린 자리였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시총회에서는 총 3가지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약사명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등기) 등에 대한 결과 보고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2023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한 약사리문화마을 주민주도형 사업의 추진 방법에 대한 사업자 모집, 사업제안서 작성, 사업자 선정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호 안건은 마을조합 운영방안을 포함한 기타 안건 및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번 임시총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중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목적, 범위, 일정, 예산,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주민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위한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임시총회에서는 주민들의 관심사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3년 하반기에 주민주도형으로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직접 사업제안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며,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춘천시-기초센터-현장지원센터-주민 간의 서로 소통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시총회 이전까지 접수된 주민 제안서는 15개 이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카페 교육, 전통주와 발효식초 교육, 도배교육, 목공교육, 홍보단 구성 등 주민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습니다. 사업 제안을 한 주민들은 총회에 직접 참석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마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사업)의 목표, 예산,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은 약사명동 주민협의체와 약사명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과 연계해 약사명동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계획이며,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협의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용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민주도형 사업계획이 실현된다면 도시재생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약사명동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년들의 꿈과 함께한 무대 뒷이야기

2023 상상아트스쿨 인터뷰

글/사진 성현아 **협조** 최민수 강사, 심유섭 강사,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

행사명 2023 상상아트스쿨
일 시 2023. 5. 6. ~ 6. 10.
장 소 춘천지하도상가 일대
내 용 청소년 대상 문화교육, 댄스·보컬·영상 제작 교육

이번 청소년 문화 교육 프로그램 〈상상아트스쿨〉은 지난 5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춘천 지하도상가 상상언더그라운드 공간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러한 공간을 이용하여 댄스, 보컬, 영상 제작의 교육과 발표회가 진행된 프로그램이랍니다. 상상아트스쿨을 마무리하며 조운동 센터의 센터장님, 강사님과 참여 학생들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답니다. 함께 보러 가실까요?



상상언더그라운드는 조운동 도시재생의 일환 사업으로 지하상가의 비어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하였으며, 공간 중의 일부를 청소년을 위한 댄스·밴드·연극 연습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을 평소에 이용하거나 노래와 댄스 등에 관심을 가지던 청소년들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도록 상상아트스쿨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상상아트스쿨은 댄스, 보컬, 영상 제작 과정으로 5주간의 교육과 결과 발표회로 진행되며 분야별 전문 강사들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작년에 진행된 프로그램에 만족하여 올해에도 신청한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열심히 연습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 청소년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 조운·소양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한영호









interview





Q1 **안녕하세요, 강사님! 상상아트스쿨 교육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상상아트스쿨을 함께 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민수 댄서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춤을 추며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의 백업 댄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댄서 최민수라고 합니다. 먼저, 퍼포먼스 내용을 다루는 수업을 진행 중이며 최대한 친구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친구들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있는데.. 모두 수업을 진행할 때 열심히 따라와 주어 수월하게 잘 진행되고 있답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보다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학생들이 나중에 어떠한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춤도 춰보고 무대에 서보는 경험이 훗날에도 꺼내 볼 수 있는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유섭 보컬트레이너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학생들 음악 지도를 16년 정도 하고 있는 심유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지역이나 대도심의 학생들에 비해 춘천지역의 학생들은 음악, 예술 분야에서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주 정도 준비하는 짧은 기간의 프로그램이지만 앞으로도 관심 가지고 내년에도 참여해서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무대가 앞으로의 본인의 진로와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행복하고 재미있는 학창 시절의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재미있게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Q2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가장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길다면 긴 5주간의 교육을 열심히 참여하고 마지막 결과 발표회를 앞둔 친구들의 전하고픈 이야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작년의 좋았던 경험과 재밌는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좋아 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두 곡을 준비 중인데 강사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자랑스러운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대단한 선생님한테 배우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참여하게 된 계기는 학교에 상상아트스쿨이라고 담임선생님께서 앞에 붙여두셨어요. 그 홍보물을 보고 '한번 배워볼까?'라는 생각으로 신청하게 되었어요. 발표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보러 와 주세요!



저는 학교 선배의 추천으로 신청하게 되었어요.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따라 발성 연습이랑 호흡 위주로 연습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스킬을 집에서 따로 연습하고,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니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상상아트스쿨에 참여한 학생들과 강사님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생생히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6주 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신 학생들과 강사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춘천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춘천 kbs 라디오 〈생방송 오늘은..〉에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브루클린?

성수동 일대 **선진지** 견학

글/사진 이예은

지난 6월 초 조운동 센터 직원 전체가 성동구 일대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어요. 성수동은 도시재생의 본질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손꼽히는데요. 원래의 성수동은 한국의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준공업 지역이었죠. 섬유 관련 업체부터 화학, 자동차 기계 등 제조 공장들이 즐비했답니다. 1980년대 제조업의 쇠퇴에 이어 2000년 이후 수제화 산업 또한 기울게 되면서 성수동에는 노후 건축물과 폐공장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공간에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예술가들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버려진 건물들의 낡은 외관과 분위기를 살려 문화공간을 만들었어요.

시작은 '대림창고'예요. 1970년대 정미소, 1990년대 공장 부자재 창고로 쓰이던 공간이 아티스트에게는 영감이 되었어요. 창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2011년 카페로 변신했는데, 그 후 패션쇼·런칭 행사·전시회·공연 등이 연일 이어졌다고 해요. '대림창고'가 불러온 나비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와 같이 폐건물의 원형을 살린 크고 작은 매장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생산-제조-소비가 하나로 이어지는 ONE LINE 시스템을 구축한 복합문화공간 '성수 연방' 역시 오래된 화학 공장 부지를 그대로 활용해 탄생했고요. 더불어 때마침 좋은 타이밍에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되고 수제화 특화 사업, 붉은 벽돌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었어요 현재 성수동은 지역 정체성의 보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는 서울 최고의 상권이 되었죠.





'1유로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유럽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방치된 채 쓰지 않는 오래된 건물을 단 1유로의 임대료만 내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송정동의 1유로 프로젝트는 3년 임대료가 1유로라고 해요. 2년여간 방치된 건물이었던 빌라를 리모델링하여 진행하고 있어요. 순수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스몰 브랜드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해요. 도시재생의 근본적 목표를 좇고 있는 멋진 본보기를 살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춘천지하상가에서 여름나기

틈새콘서트 & 상상 한 여름

글 이경은 **사진** 이예은(틈새콘서트), 편지영(상상한여름)

연초부터 문화공연행사 업계에
무서운 소문이 하나 번졌습니다.
올해 여름 장마가 꽤나 길 것이라고,
특히 7월에는 해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이대로 문화가 숨 쉬는 조운동네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것인가.
하지만 조운동네에서는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었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집에 있고 싶겠지만
한 달 내내 비가 오면 심심하겠지
그럼 밖에 나오고 싶겠지
비는 피하고 싶겠지
그럼 이곳으로 오시라

춘천 지하상가로!

틈새콘서트

행사명 틈새콘서트
일 시 2023. 06. 27. ~ 08. 31. 12:20~13:00(10주간)
장 소 춘천 지하상가 일대
내 용 소규모 버스킹 공연(클래식, 마임, 마술, 어쿠스틱 등)

6월부터 8월까지 매주 화, 수, 목 점심시간! 지하상가 상상공원에서 [틈새콘서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중음악, 클래식, 국악, 마임, 마술 등 춘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연 예술가들이 12시 20분부터 50분까지 버스킹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미 공연을 즐기신 분들은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보게 되었는데 남은 자투리 시간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춘천시 온의동 주민)", "기대했던 것보다 공연의 퀄리티가 높아서 훨씬 재미있었어요 즐겁게 넋을 놓고 봤습니다.(춘천시 근화동 주민)"라며 소감을 남겨 주셨습니다.

하루를 바삐 보내고 있는 당신! 근처를 지나다가 노랫소리, 공연 소리가 들려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함께해 보세요. 하루를 더 특별하게 채워줄 작은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틈새콘서트]는 8월 31일까지 열립니다. 아직 많은 공연이 남아 있으니 꼭 한번 들러보세요!







상상 한 여름

행사명 상상 한 여름
일 시 2023. 07. 15. ~ 08. 05. 13:00 ~ 17:00(4주간 매주 토요일)
장 소 춘천 지하상가 일대
내 용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 스탬프투어, 이벤트, 포토부스(인생네컷)

[틈새콘서트]로 평일 점심시간 즐겁게 보내셨나요? 이번에는 [상상 한 여름]이 여러분의 토요일 오후를 더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평일 점심시간은 친구 또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아보세요. 춘천 지하상가 곳곳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상상 한 여름]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중앙광장으로 오세요! 지하상가로 내려오면 이미 시끌 벅적한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소리를 따라 쭉 들어오시면 원형의 큰 광장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루 네 차례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다육이 체험, 점토 거울 만들기, 비즈 팔찌 만들기, 모빌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어요. 참, 이곳에 즉석 인생네컷 포토 부스도 마련되어 있으니 함께 온 분들과 사진도 한 장 꼭 남겨보세요!

이왕 오신 김에 스탬프 투어에도 참여해보세요. 중앙로, 남부로, 도청로의 각 끝 지점인 소공연장, 갤러리상상언더,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스탬프 스팟입니다. 세 곳의 스탬프를 모두 획득하시면 귀여운 유리컵 또는 보냉백을 미션 성공 선물로 드립니다. 각각의 스팟에도 VR체험, 라이트 드로잉, 입주작가와 함께하는 예술 작품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체험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거리가 꽤 길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탬프의 순서는 관계가 없으니 먼저 도착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바로 스탬프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선 지하상가 내에서 사용한 영수증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 물건을 구매하셨거나, 카페·식당 등을 이용하셨다면 꼭 영수증을 받아주세요.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덥고 습한 여름, 시원한 춘천 지하상가에서 쇼핑도 즐기고,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겨보세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두동 50호 마을

노후 담장 벽화조성 봉사

글/사진 김보희

여름을 앞둔 6월 우두동 50호 마을에서는 노후 담장 벽화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두동 50호마을은 6.25 전쟁 직후 조성된 구호 주택 단지입니다. 이곳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후 된 곳을 조금씩 수선하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춘천시지회 그리고 춘천에서 활동 중인 강연이 작가님의 협업으로 노후담장 벽화조성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벽화를 조성하는 곳은 "3호집"이라고 불리는 최승연 어머니댁입니다.기존에 하얀 샌드위치판넬의 널반지였던 벽이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벽화 조성 전



햇볕이 쨍쨍한 더위에도 작가님의 열정과 봉사자분들의 손길을 통해 이렇게 예쁜 벽이 조성되었답니다! 최승연 어머니는 집이 너무 깨끗하고 화사하게 바뀌었다고 좋아하시며 더운 날 수고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도시재생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을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관심이 모여 벽화가 조성된 것처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심이 계속된다면 지역과 마을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우리 마을/센터 소식

지금 우리 마을은?

춘천도시재생

춘천시

춘천 도시재생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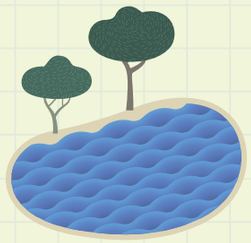
사업명 춘천 도시재생한마당
사업기간 2023. 09. 23.(토) ~ 24.(일)
사업장소 교동 커뮤니티 돌봄센터
사업내용 춘천 도시재생 홍보 및 문화공연 이벤트
문의 033-245-5264

① 춘천 도시재생 홍보·성과 전시관
② 마을상품관
| 강원디자인진흥원 디자인 전략 강화 컨설팅
| 로컬크리에이터/도시재생 전문가 초청 강연회
| 플리마켓 및 주민 바자회
| 로컬푸드 마켓
③ 문화예술공연
④ 참여 이벤트









봉의산 비탈마을

교동소양

도시 숲 조성사업

사업명 도시 숲 조성사업
사업기간 2023. 6. ~ 2023. 10.
사업장소 동·소양동 도시재생 사업구역 일대 (교동 34번지 일원)
사업내용 교동·소양동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도시 숲 관리교육 및 실습, 도시 숲 조성 체험
문의 033-245-5272

① 교동·소양동 도시 숲 관리(이론 교육)
| 기간: 2023. 6. ~ 2023. 9.
| 장소: 봉의산 창작소
| 내용 : 도시 숲 전반적인 관리 이론 교육(9회차)
② 교동·소양동 도시 숲 조성(실습 교육)
| 기간: 2023. 6. ~ 2023. 9.
| 장소: 교동·소양동 사업구역 일대
| 내용: 도시 숲 조성 현장실습 교육
– 담쟁이 및 화단 식재(10회차)
② 성과 공유회
| 기간: 2023. 9.
| 장소: 교동·소양동 사업구역 일대
| 내용: 교동·소양동 교육 성과 공유회(1회)



주민공모사업(HIP-힙한 커스텀 메이드)

사업명 주민공모사업(HIP-힙한 커스텀 메이드)
사업기간 2023. 07. ~ 2023. 9.
사업장소 커뮤니티 돌봄센터 2층 북카페
사업내용 청소년 대상 커스텀 메이드 (의류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문의 033-245-5272

① 커스텀 메이드
| 개인별 어울리는 색, 스타일 찾기, 커스텀 메이드 (의류 소품 만들기, 물품 리폼 및 물나염 염색, 성과공유회 개최)



봉의산 비탈마을

교동소양

주민공모사업 (봉의산 산약초 발효건강제품 만들기)

사업명 주민공모사업 (봉의산 산약초 발효건강제품 만들기)
사업기간 2023.07. ~ 2023. 9.
사업장소 봉의산 마을창작소 교동·소양동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사업내용 산약초 채취를 통한 지역 특화 식품 개발 및 건강증진 도모 프로그램
문의 033-245-5272

① 교육 및 전시
| 발효 장아찌 교육, 건강 교육, 산약초 약초술 교육, 전시 및 공유회



주민공모사업 (봉황마을 커피 칸타타)

사업명 주민공모사업(봉황마을 커피 칸타타)
사업기간 2023. 07. ~
사업장소 봉의산 마을창작소 (춘천시 교동 93-94번지)
사업내용 인문학과 커피를 주제로 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문의 033-245-5272

① 토크 콘서트 및 커피 로스팅
| 커피와 춘천 문화 토크 콘서트 및 커피 로스팅, 나만의 드립백 커피 및 커피 방향제 만들기



조운소양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틈새콘서트

사업명 틈새콘서트
사업기간 6.27.~ 8.31.(화/수/목)
사업장소 춘천지하상가
사업내용 소규모 버스킹 공연
문의 033-250-4938



주민공모사업 (조운하모니 요선우쿨렐레)

사업명 2023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조운하모니 요선우쿨렐레)
사업기간 7.1.~ 8.26. 매주 토요일 16:00~18:00
사업장소 조운웰컴센터 2층
사업내용 우쿨렐레 강의, 결과발표회
문의 033-250-4936



조운소양

주민공모사업(천아트, 꽃차 강의)

사업명 2023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천아트, 꽃차 강의)
사업기간 7.5.~ 8.23. 매주 수요일 10:00~14:00
사업장소 춘천지하상가 마-23, 24호(상상아트쉼터)
사업내용 천아트, 꽃차 강의, 결과물 전시
문의 033-250-4936



상상언더그라운드 문화공연 〈상상 그 이상의 댄스〉

사업명 상상언더그라운드 문화공연 〈상상 그 이상의 댄스〉
사업기간 7.12.(수) ~ 12.2.(토) 9:30~10:30 주 1회 교육
사업장소 상상언더그라운드 댄스연습실, 소공연장
사업내용 라인댄스, 이지댄스, 스페셜 안무 배우기, 결과발표회
문의 033-250-4935



조운동네

조운소양

상상언더그라운드 소규모 문화공연 〈상상 한 여름〉

사업명	상상언더그라운드 소규모 문화공연 〈상상 한 여름〉
사업기간	7.15. ~ 8.5. 매주 토요일 13:00~17:00
사업장소	춘천지하상가 일원
사업내용	공연, 체험, 스탬프투어, 이벤트, 포토부스
문의	033-250-4937



조운위크 여름

사업명	조운위크 여름
사업기간	8.25.(금) ~ 8.26.(토)
사업장소	춘천시청 광장
사업내용	한여름 밤의 음악회, 체험, 마켓, 이벤트
문의	033-250-4938



조양운교

조양·운교 주민참여 골목길 환경개선 프로그램 운영

사업명	조양·운교 주민참여 골목길 환경개선 프로그램
사업기간	7월~10월
사업장소	조양·운교 사업지 일대
사업내용	조양·운교 사업지 일대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문의	033-245-5263

① 조운동 수변공원 내 클린하우스 설치 활동
② 노후담장 페인트 채색을 노후담장 수선 활동
③ 우리마을 특색있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제작 활동
④ 골목길 화단 정비 활동
⑤ 마을 공유텃밭을 활용한 마을 팜파티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 치읓치읓 11호

춘천 도시재생 매거진 'ㅊㅊ(치읓치읓)'은
춘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보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분들의 활동 소식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 공간입니다.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더 많은 분들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홈페이지〈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uris.chuncheon.go.kr
- 블로그〈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blog.naver.com/c_crsc
- 유튜브〈춘천도시재생〉
  https://www.youtube.com/channel/UCdg0FbJGB_AKPTkhPhjg3Bg

약사리마을 소통공간
- 카페〈춘천 약사리 문화마을〉
  https://cafe.naver.com/munhwavillage
- 인스타그램〈춘천 약사리 문화마을〉
  https://www.instagram.com/yaksa_village
- 페이스북〈춘천 약사명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YaksariFriends

교동소양동 소통공간
- 인스타그램〈교동 소양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instagram.com/vital_village_
- 페이스북〈교동 소양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https://www.facebook.com/Gyo2019

조운동네 소통공간
- 인스타그램〈조운동네〉
  https://www.instagram.com/joundongne
- 유튜브〈조운동네〉
  https://www.youtube.com/channel/UC_haKq39kpwy6FDLgW97YtA
- 블로그〈조운동네〉
  https://blog.naver.com/joundongne

춘천시 City of ChunCheon | 춘천도시재생 | 소근소근문화마을 | 약사리 문화마을 | 봉의산 비탈마을 | 조운동네 | 50호 마을